

$H = XZ^2$, 행복 방정식을 풀다: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리뷰*

김지원**

구교준***

김동욱****

고은정*****

행복은 심리학뿐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광범위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일종의 범용성을 가진 주제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들과 접촉되어 연구되고 있다. 본 리뷰는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Veenhoven이 제시한 행복의 '투입-전환-산출'이라는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행복의 투입요인과 전환요인은 상호작용하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사회의 투입요인이 향상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복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의 투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이 실제 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요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제어: 행복, 행복 결정요인

* 본 논문은 재단법인 여민 신하 한국행복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우리나라 지역 행복 수준 결정요인 연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제1저자,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복, 지역격차, 불평등 등이다(widnjs21@korea.ac.kr).

*** 교신저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복, 지역혁신, 창업 등이다(ikoo@korea.ac.kr).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저출산, 행복, 계량행정 등이다(dongwook1995@gmail.com).

***** 인천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도시행정 등이다(konij68@korea.ac.kr).

I. 서론

행복은 심리학뿐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광범위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일종의 범용성을 가진 주제이다. 워낙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와 접목되어 연구되다 보니 최근에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행복이 가지는 플랫폼적 성격이 강조되기도 한다(구교준, 2020).

문제해결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의 행복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는 행복의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가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문제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행복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소득, 주거, 교육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객관적인 조건을 향상시키면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1930년대 시작된 good life movement(Ogburn, 1935; Ogburn & Jaffe, 1936)와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삶의 질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삶의 객관적 조건을 투입으로 행복을 그 결과물인 산출로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행복은 결국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져오는 일차원적 결과물이며(Palys & Little, 1980), 따라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의 질문은 삶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매우 단순한 일차방정식이 된다.

무엇이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지에 대한 초기 탐구는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 Easterlin(1974)의 연구를 거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Easterlin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인 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와 실증분석을 통해 주장하였다(Easterlin, 1995, 2003). 또한, 이후 연구들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소득증가가 행복 수준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Clark, Frijters, & Shields, 2008; Layard, 2006). 국내 연구에서도 구교준 외(2020)는 지역 간 비교를 통해 경제 수준이나 건강, 교육 등 삶의 객관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 행복 수준이 높은 지역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소득을 비롯한 삶의 객관적 조건과 행복 간의 불일치 현상에 관한 기존 연구는 행복 수준의 결정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행복의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행복이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고차방정식으로서의 행복 방정식에

대한 명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Veenhoven(2001)에 의하면 투입으로서의 삶의 객관적 조건과 산출로서의 행복 간의 관계는 투입이 산출로 이어지는데 작용하는 전환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행복의 결정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있어 삶의 객관적 조건과 행복의 연결고리로서 전환요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이나 주거, 교육과 같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삶의 환경은 행복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Sen(1980)이 주장한 삶의 역량(capability)과 같은 전환요인이 작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이다(구교준, 2020).¹⁾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투입, 전환, 산출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본 Veenhoven(2001)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행복의 결정요인과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리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행복의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깊은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담론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행복의 정의와 측정: 유사개념을 중심으로

행복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행복을 쾌락적인 삶(pleasant life)으로 볼 것이냐 혹은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당대 철학자들의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다(Kesebir & Diener, 2008; Ryan & Deci, 2001). 행복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이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행복이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사회과학에서 행복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심리학 분야에서조차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는 단순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의 이면이라고 간주되어 1970년대까지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즉 당시에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행복에 가까운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이 정신병적 증상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Myers & Diener, 1995).

행복이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게 된 것은 행복이라는 심리 현

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역량'은 Sen이 정의한 'capabil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서의 '역량'과는 차이가 있다. Sen의 '역량' 개념의 정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Nussbaum(2003) 참조.

상이 단순히 인간의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제거한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기제를 통해 작동하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hedonic psychology의 영향이 크다. 1970년대부터 등장한 이러한 심리학 사조는 연구의 초점을 인간 심리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동시켰다(Deci, 1975). 대표적인 예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개념이다. Diener(1984) 등이 발전시킨 주관적 안녕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인지적인 평가(삶의 만족감)와 정서적인 평가(긍정 혹은 부정의 감정)가 합쳐진 개념이다. 인지적인 평가란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사후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으로 경험과 그에 대한 감정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정서적인 평가는 현재의 경험에 대해 느끼는 순간의 감정으로 경험과 감정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쾌락의 측면과 의미의 측면을 다양하고 모호하게 담고 있던 전통적인 행복 개념을 과학적 연구와 측정이 가능하도록 쾌락의 측면에 방점을 두고 좀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평가를 받는다(Kubovy, 1999).²⁾ 주관적 안녕 개념은 오늘날 대부분의 행복 연구에서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관적 안녕 개념의 소개가 행복의 과학적 연구에 서막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행복은 여전히 사회과학자들에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이유 중 하나는 효용(utility), 삶의 질(quality of life), 후생(welfare), 웰빙(well-being) 등 행복과 유사하여 혼용되는 관련 개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의 정의를 이러한 유사개념들과의 차이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은 행복 연구를 진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행복, 특히 주관적 안녕 개념이 대표하는 쾌락으로서의 행복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효용을 살펴보자. 고대 그리스 시대의 행복 논의에서 쾌락으로서의 행복은 에피쿠로스의 영향을 받은 hedonism으로 정의되는데,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신적 만족감을 대표한 hedonism의 접근은 현대 경제학과 자본주의 철학의 토대가 된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뿌리가 되었다.³⁾ 오늘날 학술 담론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효용 개념은 이러한 측면에서 쾌락으로서의 행복, 주관적 안녕 개념과 매우 유사하고 흔히 '행복'과 혼용되기도 한다. 즉 쾌락으로서의 행복 개념이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안녕으로 경제학에서는 효용으로 분화되어 발전했다고 볼

2) 행복의 정의와 측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구교준·임재영·최슬기(2015) 참조.

3) 이에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eudaimonism으로 정의되어, hedonism과 함께 행복의 성격을 구분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폭넓게 소개되고 있다(Ryan & Deci, 2001).

수 있다.

다음으로 행복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사개념으로 삶의 질을 빼놓을 수 없다. 삶의 질 연구는 어떤 삶이 과연 '좋은 삶(good life)'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고 노력했던 1930년대의 'good life movement'로부터 시작되었다(Ogburn, 1935). 이 시기의 삶의 질 논의는 미국 사회가 가진 자본주의적 성격이 짙게 배어 생산, 소비, 소득과 같은 경제지표를 통해 좋은 삶을 평가하려 하였다(Palys & Little, 1980). 특히 단일 화폐가치를 통해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개념도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de Neufville, 1975).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제지표만으로 좋은 삶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려는 시도의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기존 경제지표들은 경제적 풍요에 수반되는 불평등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뿐 아니라 건강, 환경, 교육 등과 같이 좋은 삶을 구성하는 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는 사회지표 중심으로 삶의 질을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접근이 등장하였다(Land, 1983).

한편 1970년대 들어서는 객관적인 측면의 좋은 삶을 평가하려는 사회지표 중심의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힘이 실렸다(Campbell & Converse, 1972). 특히 소득과 같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와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실증 연구들이 소개되면서(Easterlin, 1974),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심리상태가 사회지표로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삶의 질을 건강, 환경, 교육 등과 같은 객관적 사회지표를 통해 정의하고 평가하려는 접근을 투입 중심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평가하려는 접근은 산출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이 주관적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산출에 가깝다고 한다면, 삶의 질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함께 행복까지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Veenhoven, 2001).⁴⁾

삶의 질을 투입과 산출로 나누어 해석하면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능력 등에 따라 동일한 투입에 대해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 즉 산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다. 즉, 개인이 투입된 객관적 자원을 심리적 산출물로 바꾸는 능력, 즉 전환의 기능이 투입과 산출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Sen(1980)은 이러한 전환 기능을 역량(capability)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이 의미를 두고 있는 무언가를 추

4) Veenhoven(2001)은 삶의 질은 '① 투입, ② 전환, ③ 산출로 구성될 수 있으며, 행복은 결국 삶의 질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투입과 전환을 통한 삶의 전반적인 결과로 보았다.

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되는 역량도 넓은 의미에서 삶의 질의 일부라고 해석될 수 있다. Veenhoven(2000, 2001)은 삶의 질 개념을 투입, 전환, 산출로 매우 정교하게 개념화 한 모델을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복 방정식의 이론적 분석틀로 사용하게 될 Veenhoven의 개념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한다.

한편 행복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개념은 후생이다. 후생은 현대 경제학에서 개인의 심리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개념으로, 흔히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는 삶의 질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삶'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개인의 욕구 충족은 시장에서의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후생은 만족감이라는 일종의 심리적 현상이지만 시장과 소비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효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효용과 후생 모두 시장과 소비라는 메커니즘을 통한 욕구 충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경제학이 경제성장을 좋은 삶 혹은 행복의 필요조건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학자 대부분은 효용과 후생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서로 교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개념은 웰빙이다. 웰빙은 후생과 유사하지만, 후생이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라면 웰빙은 윤리 철학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좀 더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이다(Reiss, 2020). 따라서 후생이 시장과 소비 메커니즘을 통한 개인의 욕구 충족을 의미하지만, 웰빙은 개인의 삶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영위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무엇이 '좋은 삶'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후생과 웰빙은 상당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후생의 관점에서 '좋은 삶'이란 개인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 그러나 웰빙이 대표하는 '좋은 삶'은 소득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다. 웰빙 개념은 삶의 질 논의에서 소개된 건강, 교육, 환경, 관계 등과 같이 삶이 전반적으로 잘 영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Maximo, 1987). 따라서 웰빙은 후생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후생이 담고 있지 못한 다양한 측면의 삶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Ⅲ. 행복 방정식의 이론적 틀

행복 연구는 기존에 많은 주목을 받아온 경제 부문 외에도 환경, 안전, 교육, 가치관, 문화, 관계, 건강, 여가, 정치, 제도 등 사회과학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

단위 또한 개인 수준 이외에 지역과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종합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⁵⁾ 그런데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단순히 경제, 교육, 관계 등의 일차원적이고 병렬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분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삶의 결과로서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다층적이고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 결정요인의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선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행복을 바라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Veenhoven(2001)은 투입과 전환의 개념을 통해 행복 결정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그는 특히 경제적 풍요나 신체적 안전과 같은 요인을 '투입'으로, 개인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통제 등 Sen이 강조한 삶의 역량을 '전환'으로 보았으며, 물리적 자원의 투입은 전환 과정을 통해 행복이라는 '산출'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투입이 외적 환경적 요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을 의미한다면, 전환은 개인의 역량과 맞는 것으로 다양한 자원들을 개인이 어떻게 자신이 가진 의미와 가치의 실현을 위해 활용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Veenhoven(2001)이 제시한 투입과 전환, 그리고 그 산출물로서 행복이라는 프레임은 행복과 관련한 상당한 선행연구들이 주목한 다양한 영역들을 재구성하는데 기반을 제공한다(〈표 1〉 참조).

먼저 투입은 Veenhoven(2001)이 제시한 개인의 삶에 있어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1) 경제적 요소, 2) 외부 환경적 요소, 3) 교육, 4) 제도적 요소로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경제적 요소는 경제수준과 노동, 주거가 핵심적 요인으로 포함되며, 이는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과 근린의 전반적인 환경 또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자연환경을 포함한 주거환경이나 시설과 같은 인프라와 교통, 안전 등 전반적인 외부 환경적 요소 또한 중요한 투입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투입요소는 교육을 들 수 있는데, 개인의 이성적 사고와 지적 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 시설과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제도적 요소는 투입과 전환에 나뉘어 포함되는데, 투입에 해당하는 제도적 요소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의미한다.

전환은 개인이 투입으로서 다양한 자원을 행복이라는 산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의미한다. 다양한 자원이 제공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행복으로

5) 본 연구는 행복의 대상이 개인, 지역, 국가 수준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결국 지역 및 국가 수준의 행복도 개인 수준의 행복을 집합하여 나타냈다는 측면과 선행연구들의 경우 분석 단위가 다를지라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거의 같다는 점에서 분석 단위를 나누지 않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역량은 행복 방정식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전환의 요소로는 1) 문화·가치관 요소, 2) 관계적 요소, 3) 건강·여가 요소, 4) 정치적 요소, 5) 제도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문화·가치관 요소는 종교와 개인 및 집단주의를 아우르는 '문화적 요소'와 개인의 긍정성이나 외향성, 경쟁의식 등을 포함하는 '기질 및 태도', 그리고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포용성과 자유와 통제를 아우르는 '가치관 부문'이 해당한다. 문화·가치관 요소의 경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성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사한 교육을 받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개인이라도 그가 가진 긍정성이나 경쟁의식 등의 기질,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성 등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전환요소는 관계적 요소로 신뢰와 참여·사회적 관계, 그리고 혼인 여부와 가족 형태 등 가족관계를 포함한다. 관계적 요소는 개인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경제적, 환경적, 제도적 수준의 투입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와 참여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수준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따라서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사회적 관계가 촘촘한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의 행복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세 번째 전환요소인 건강·여가 요소는 생명을 유지하고 균형 있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경제적, 환경적, 제도적 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이는 행복의 실현에는 큰 의미 없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시간이 허락지 않는다면 높은 소득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이 행복 수준에 그다지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은 정치적 요소로 민주주의와 민주적 권리, 행정의 효과성, 거버넌스 등의 정부 영역과 부패 수준 등을 포함한다. 투입에 해당하는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라면 개인의 행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 제도적 요소는 투입으로서 단순한 행정서비스와 달리 개인이 삶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와 관련된 정책이 대표적인데 이는 투입의 공적 서비스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 개인이 밥벌이를 위한 노동과 가족의 돌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투입된 자원이 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Veenhoven(2001)의 분석

틀을 재구성하여 도출한 행복의 결정 메커니즘은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Veenhoven(2001)이 제시한 구성요소의 재구성

구성요소	개념	해당 세부변수	→	중간 영역	세부 요인
투입 (Quality of environment)	환경적 요인	생활환경의 수준, 경제적 풍요, 실업, 사회적 평등, 정치적 자유, 신체적 안전 등	→	경제적 요소	경제, 노동, 주거
			→	외부 환경적 요소	교통·인프라, 자연환경, 안전
				교육	교육수준, 교육 시설
				제도적 요소	정부(행정서비스)
전환 (Quality of performance)	삶의 역량	자가 건강상태, 환경에 대한 통제, 관용, 종교 등	→	문화·가치관 요소	문화적 요소(종교, 개인주의), 기질 및 태도(성취 욕구, 긍정성, 경쟁), 가치관(포용성, 자유와 통제)
				관계적 요소	신뢰, 참여·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건강·여가 요소	건강 수준, 건강시설, 여가시설
				정치적 요소	민주주의, 정부, 부패
				제도적 요소	탈상품화, 탈가족화 정책 등
산출 (Quality of life results)	전반적인 삶의 결과	삶의 만족도	→	-	-

* 출처: 김지원(2020:12)의 재구성

IV. 행복의 결정요인

1. 투입

1) 경제적 요소

경제적 요소와 행복 간의 연구는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적 부문과 행복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

들의 경우 '경제 수준'과 '노동', '주거 소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제적 요소의 '경제 수준'은 주로 소득 수준, 상대소득, 1인당 GDP, 물질주의적 가치관 등이 분석되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후 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Easterlin(1974)의 역설 이후 행복에 관한 소득의 한계효용 감소 효과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확장되었다(Deaton, 2008; Diener & Biswas-Diener, 2002; Frey & Stutzer, 2002/2008; Hagerty & Veenhoven, 2003; Inglehart et al., 2008; Inglehart & Klingemann, 2000; Veenhoven, 1991).

연구들은 크게 Easterlin(1974)의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적 수준과 행복의 관계에 한계효용 감소 효과가 작용한다는 연구들(Diener & Biswas-Diener, 2002; Frey & Stutzer, 2002/2008; Inglehart et al., 2008; Inglehart & Klingemann, 2000)과 경제 수준 향상이 더는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게 되는 '만족점'은 없으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행복을 증진한다는 주장으로 분류되었다(Hagerty & Veenhoven, 2003; Veenhoven, 1991). 만족점은 없다는 입장과 관련하여 Deaton(2008)은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GDP에 로그를 취하면 삶의 만족도와 선형관계를 이룬다고 반론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소득의 한계효용 감소 효과의 경우 시계열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횡단면적으로 분석할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박정인·박민근, 2017; 이민아·송리라, 2014; 한준 외, 2014).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이처럼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 외에도 상대소득,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같은 상대적·심리적 '경제 수준'과 행복 간의 관계를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이민아·송리라, 2014; 한준 외, 2014; Alderson & Katz-Gerro, 2016; Becchetti, Pelloni & Rossetti, 2008; Clark, Frijters & Shields, 2008; Dorn et al., 2007; Easterlin, 2001; Graham & Felton, 2006; Hopkins, 2008; Stutzer, 2004). 상대소득과 관련하여 Alderson & Katz-Gerro(2016)는 소득을 타인과 비교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더 낮으며, 소득뿐만 아니라 휴가나 옷, 여가 활동을 비교하는 정도가 강한 경우에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밝히기도 하였다. 개인소득과 평균소득 간의 차이를 상대소득으로 측정하여 평균소득 및 상대소득과 행복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Dorn et al.(2007)과 Graham & Felton(2006)은 평균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과 달리 상대소득이 행복의 영향요인임을 밝힘으로써 상대소득 가설을 지지하였다.

한편,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행복 간의 관계를 주목한 Easterlin(2001)은 소득의 증가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물질적 열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행복 상승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결국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되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면서 소득의 효과가 상쇄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경제적 요소의 '경제 수준'과 관련한 연구들을 종합하자면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 외에도 주관적 소득 수준과 행복 간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의 연구와 또 다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수준과 더불어 경제적 요소의 주요요소로 '노동' 또한 대표적 요인으로 노동은 포괄적으로 실업과 구직기회, 고용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을 포함하는 상당한 연구들의 경우 실업 상태일 경우 행복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Clark, 2003; Frey & Stutzer, 2000; Gerdtham & Johannesson, 2001; Hartog & Oosterbeek, 1998; Helliwell & Putnam, 2004; Lelkes, 2006; Stutzer, 2004; Tavits, 2008; Tella, MacCulloch & Oswald, 2003). 또한, 구직기회는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ichalos & Zumbo, 1999; Sirgy, Gao & Young, 2008), 실업률도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vits, 2008; Tella, MacCulloch & Oswald, 2003). 실업 상태에 관해서 Frey & Stutzer(2002/2008)는 실업이 자존감 하락과 우울 등 심리적 타격을 일으키는 '심리적 비용'과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행복을 낮추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과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실직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그만큼 실업이 개인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Hanslmaier, 2013; Kuroki, 2013).

마지막 경제적 요소로 주거 소유 여부나 주거유형, 자가 크기 등을 포함한 '주거'와 관련한 변수들이 포함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수로 주거 소유 여부의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자가를 소유한 사람일수록 행복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조준택·박지선, 2016; Elsinga & Hoekstra, 2005; Kim & Jin, 2018; Kuroki, 2013; Zhang, Zhang & Hudson, 2018).

2) 외부 환경적 요소

좋은 삶을 위한 두 번째 투입요소는 외부 환경적 요소로 '인프라적 요소', '자연환경

경',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포함한다. 점차 도시민들의 삶과 행복에 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역의 외부 환경적 요소가 지역주민의 행복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여건이나 다양한 지역 기반 시설과 같은 '인프라적 요소'에 대한 욕구 충족이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안윤정, 2014; 이영빈·정창무, 2013; 허만형, 2014; 허철행·김도엽, 2000). 한편, 모든 도시기반 시설이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도시기반 시설에 따라 행복에 양면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영빈·정창무, 2013).⁶⁾ 이는 단순히 도시기반시설이 많다는 양적 측면보다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경제발전 시기에 뒤돌아보지 못했던 도심의 공원이나 대기의 질, 소음, 폐기물 배출량과 같은 '자연환경' 또한 시민들의 행복 혹은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투입요소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영균·김동규, 2007; 이우민·서승연·이경환, 2016; Benita, Bansal & Tunçer, 2019; Kim & Jin, 2018; MacKerron & Mourato, 2009; Rajani, Skianis & Filippidis, 2019). 특히 도심의 공원이나 녹지공간의 경우 거주민의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이우민·서승연·이경환, 2016; Benita, Bansal & Tunçer, 2019; Kim & Jin, 2018). 지역의 공기의 질 또한 중요한 자연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런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기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MacKerron & Mourato(2009)은 소득 수준, 건강, 관계 등의 요소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대기 중 이산화질소의 양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외부 환경적 요소로 '안전' 역시 행복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비치고 있다. '안전'과 행복 간의 연구에서 범죄율과 범죄에 의한 희생 경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 안전성, 화재 발생 건수, 파출소 수 등이 세부 요인으로 다루어졌다(조준택·박지선, 2016; Cheng & Smyth, 2015; Hanslmaier, 2013; Kuroki, 2013). 개인적인 강도, 도둑, 절도, 협박 및 위협을 당한 경험은 행복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eng & Smyth, 2015; Kuroki, 2013),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Hanslmaier, 2013). 지역 범죄율도 또한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특히 생활환경이 열악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준택·박지선, 2016). 한편,

6) 예를 들어 방지사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행복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2006년과 2012년 서로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수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영빈·정창무, 2013).

Kuroki(2013)은 절도를 당한 경험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는데 일본의 2002년 강도사건으로 인한 평균 손실액은 약 \$5,800였던 것에 반해, 심리적 비용은 \$35,000~\$52,500만큼 잃는 것에 버금가는 것으로 범죄로 인해 희생당한 경험에 대한 심리적인 비금전적 비용이 금전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행복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3) 교육

세 번째 투입요소는 교육으로 이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교육이 행복 연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음에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크게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교육수준과 행복 간의 관계가 비선형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견해로 나뉠 수 있다. 교육이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의 경우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도 커짐으로써 교육수준과 행복의 선형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박정인·박민근, 2017; Chang et al., 2018; Frey & Stutzer, 2000; Kim & Jin, 2018; Kuroki, 2013; Lelkes, 2006).

1991~1992년과 1997~1998년의 헝가리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행복수준을 분석한 Lelkes(2006)은 두 시기 모두 교육수준이 커짐에 따라 행복도 커지는 것으로 밝히며 특히 1997~1998년에 교육수준에 의한 행복 수준의 증가가 1991~1992년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국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박정인·박민근(2017)은 초등학교 졸업보다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수준과 행복 간의 차이를 분석한 Kim & Jin(2018)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혀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위의 결과와 반대로 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여러 국가의 맥락에서 확인되기도 한다(변미리·최정원, 2016; Alvarez-Diaz, Gonzalez & Radcliff, 2010; Hartog & Oosterbeek, 1998; Helliwell & Putnam, 2004; Inglehart & Klingemann, 2000).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변미리·최정원(2016)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초등학교 졸업자보다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행복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세계 49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대략 8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수준과 삶의 만족도 및 행복 간의 관계를 확인한 Helliwell & Putnam(2004)은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에 있어 교육수준이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남으로써 교육수준이 행복에 영향요인이 아님이 반증 되기도 하였다(Inglehart & Klingemann, 2000). 네덜란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총 7개의 학력 더미 변수를 통해 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Hartog & Oosterbeek(1998)은 고등직업교육이나 대학으로 진학하기 전 단계에서 행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교육과 행복이 비선형 관계임을 밝혔다.

보통의 교육수준이 공식적 측면의 교육을 포함한다면 정규교육과정이지 아닌 비공식 측면의 학습 또한 포괄적으로 행복과 연관을 맺을 수 있다(Michalos, 2008). Michalos(2008)은 비공식 측면의 교육으로 일과 관련된 훈련, 미디어나 예술, 문화 등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 학습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교육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행복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큰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교육수준 외에도 최근 학교 수, 학생 수, 사설 학원 수 등과 같은 공교육 및 사교육 교육여건, 공교육 만족도가 행복에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교육여건의 인프라 역시 행복에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안윤정, 2014; 이영균·김동규, 2007; 황종석, 2017).

4) 제도적 요소

마지막 투입요소는 정부의 행정서비스나 정책 등과 같은 제도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이후 전환의 제도적 요소와 구별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여건이나 안전 및 여가 서비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같은 정부의 투입이나 국민의 정책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행정서비스 및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소가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고명철, 2013; 이영균·김동규, 2007; 최일진·남황우, 2016; 하혜수, 1996; 허만형, 2014; 허철행·김도엽, 2000; 황종석, 2017).

투입의 제도적 요소의 경우 행정서비스와 정책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양적 측면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여건과 사업예산비율이나 세출 결산 규모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비율이나 세출 결산

규모가 행복에 유의한 요인으로서 공적 제도 공급의 중요성을 제시되기도 하였다(하혜수, 1996; 허철행·김도엽, 2000). 미국 플로리다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명철(2013) 또한 안전서비스(경찰 서비스, 범죄예방, 교통지도)와 여가 서비스(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가 시민들의 전반적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행정서비스와 정책 수준의 양적 측면의 제공 외에도 제도의 질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행복에 작동할 수 있다. 이영균·김동규(2007)는 만족도와 같은 행정서비스의 여건이 성남 시민들의 총체적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측정한 황종석(2017)과 허철행·김도엽(2000)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원이 시민들의 행복에 작동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행정서비스 외에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만족도 또한 삶의 질에 있어 유의미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최일진·남향우, 2016). 종합하자면 행정서비스나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양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또한 주민들의 행복에 작동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전환

1) 문화·가치관 요소

문화·가치관 요소와 행복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문화’, ‘기질 및 태도’, ‘자유’, 그리고 ‘포용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개인 혹은 사회의 보다 정신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때 ‘문화’는 종교나 개인주의와 같은 가치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행복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Diener, Diener & Diener, 1995; Diener et al., 1995; Inglehart et al., 2013; Inglehart & Klingemann, 2000; Lelkes, 2006; Lim & Putnam, 2010). Lelkes(2006)은 비록 경제적인 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종교가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Inglehart & Klingemann(2000)은 비록 종교권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나 유전적 특질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종교 자체가 국민의 전반적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문화·가치관 요소의 ‘기질 및 태도’는 개인의 역량과 더 가까운 것으로 낙관주의나 외향성과 같은 개인의 기질과 경쟁이나 협력과 같은 넓은 의미의 태도를 포함한다. 기질 및 태도와 관련하여 외향성이나 낙관주의, 자존감 및 긍정적 자기 평가 등의 요소들의 경우 행복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지니거나 행복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소 외, 2003; Furnham & Cheng, 2000; Liang, Tang & Huo, 2014; Lu &

Argyle, 1991). 김명소 외(2003)는 개인의 가치관 가운데 낙관성, 개인적 역량 중에 성취 및 자기수용, 자기 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이타심 등의 기질이 행복과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외향성, 낙관주의, 긍정적인 자기 평가 등의 기질적 요소들이 행복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Furnham & Cheng, 2000), 외향성에 더해 협력성과 자존감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u & Argyle, 1991). 한편, '기질 및 태도'의 주요한 요소인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행복을 높이지만 반대로 경쟁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행복을 낮추는 것으로서 경쟁을 대처하는 개인의 태도 및 역량 또한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Grasseni & Origo, 2018).

문화·가치관 요소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자유와 통제'는 개인이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Brulé & Veenhoven, 2014; Haller & Hadler, 2004; Verme, 2009). 대표적으로 Verme(2009)은 75개 국가의 대략 16만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택과 통제에 관한 자유 수준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다른 경제적, 사회적 관계, 개인의 가치관 등의 요인들 가운데 자유 수준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또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Haller & Hadler, 2004). 결국, 같은 수준의 투입이 제동될지라도 얼마만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행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가치관 요소의 마지막 '포용성'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종의 다양성 외에도 타 집단에 대한 관용 등을 포함한다. 이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포용성과 관용이 높을수록 행복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다양성을 포괄한 사회적 다양성이 자유 선택의 범위를 확장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높을수록 행복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Alvarez-Diaz, Gonzalez & Radcliff, 2010; Crowley & Walsh, 2021; Inglehart et al., 2008; Inglehart et al., 2013; Veenhoven, 2001).

한편 이러한 가치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문화와 가치관 요소를 전환으로 보는 시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포용적인 사회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인적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으며, 인종 다양성과 이민자가 가져오는 창의성과 기술·능력의 분화로 인해 생산력을 증진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kay et al., 2017; Crowley & Walsh, 2021; Florida & Gates,

2001; Inglehart et al., 2008; Putnam & Putnam, 2007). 이는 다양성 및 포용성과 같은 가치관이 경제 및 인프라적 투입요소를 촉진함으로써 행복의 기제로 작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⁷⁾ 이처럼 어떠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 개인이 어떠한 기질과 태도를 가졌는지, 개인의 삶의 선택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등의 조건은 직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투입요소들을 활용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조절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관계적 요소

전환의 두 번째 관계적 요소는 타인과의 신뢰 구축, 참여, 소속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서적 지지를 구축함으로써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관계적 요소와 행복 간의 관계를 주목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개인들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집단 간의 ‘신뢰’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자본, 인적자본과 같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Coleman, 1998). ‘사회적 자본’의 중심 요소로 신뢰, 네트워크, 참여 외에도 사회적 지지, 기부, 배우자의 유무 등의 관계를 측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 관계적 요소에서는 ‘신뢰’, ‘참여·사회적 관계’,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인인 ‘신뢰’는 이웃 간의 일반적 신뢰와 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로 다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높은 일반적 신뢰 혹은 공적 신뢰는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안윤정, 2014; 이승중·이서희·조창덕, 2020; 이우민·서승연·이경환, 2016; Helliwell & Putnam, 2004; Hudson, 2006; Tokuda, Fujii & Inoguchi, 2017; Verme, 2009).⁸⁾ 공적 신뢰와 관련하여 Helliwell & Putnam(2004)은 WVS(World Value Survey) 자료를 통해 49개국 시

7) 포용성과 달리 다양성은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종 다양성, 이민자 등을 비롯한 다양성의 증가는 신뢰, 사회적 연대 및 사회적 자본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거나 이들과의 긍정적인 교류가 증가하고 일자리, 범죄 등 타 집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험이 감소하여 종합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강화로 이어지기도 한다(Alesina & La Ferrara, 2002; Putnam & Putnam, 2007; Schmid, Ramiah & Hewstone, 2014). 이는 다양성이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종합적·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8) 반면, 공적 신뢰가 오히려 행복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변미리·최정원, 2016).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공공기관의 대처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기 때문에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변미리·최정원, 2016).

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신뢰 외에도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행복을 높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EU의 15개국 시민들의 행복 수준을 분석한 Hudson(2006)은 정부, EU, UN, 유럽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29개 아시아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의 신뢰와 국가 수준의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Tokuda, Fujii & Inoguchi(2017)은 개인 수준의 신뢰와 국가 수준의 신뢰가 높은 사회에 사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두 수준의 사회적 자본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직접 정부의 공동체 사업을 통해 축진될 수 있지만, 외부 환경적 투입요소와 연계됨으로써 행복 간에 매개 효과가 제시되기도 한다(김지원, 2020). 시민들의 여가와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심의 녹지공간이나 도시화 수준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서 개인의 소외감이나 사회적 지지 등이 연계됨으로써 행복을 매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Maas et al., 2009).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요소의 경우 '참여·사회적 관계'와 '가족관계'로 나눌 수 있다. '참여·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요소들로서 가족관계 외에 기관의 소속이나 참여, 사회적 관계의 형성, 사회적 지지 등을 의미한다. 이때, 사회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자원들의 충족이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준택·박지선, 2016; 허만형·이기엽, 2020; 황종석, 2017). 타인과 소통하거나, 심리적 지지를 받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무시와 불인정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한준 외, 2014), 사회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는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준택·박지선, 2016; 허만형·이기엽, 2020; 황종석, 2017).

또한, Bramston, Pretty & Chipuer(2002)는 외로움이 친밀감, 공동체 참여, 그리고 정서적 웰빙 영역들의 분산을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밝히며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 영역들과 상당한 연관이 있으므로 외로움을 낮추는 것이 직접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하였다. 마지막 관계적 요소의 주요 요인은 '가족관계'로 대표적으로 혼인 여부가 측정되고 있다. Helliwell & Putnam(2004)은 49개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더 행복하고 이혼, 별거, 사별한 사람보다 동거자가 있을 때 또한 행복 수준이 더 높음을 밝히면서 행복한 삶에 있어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관계적 요소도 문화, 가치관 요소와 마찬가지로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투입과 산출을 연결하는 매개 혹은 조절요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뢰는 중요한 매개요인이 된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유추하면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도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접촉면을 넓힘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관계가 소득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계는 투입으로서의 자원과 행복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3) 건강·여가 요소

세 번째 전환요소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삶을 지속하는데 근본이 되며 다양한 자원의 투입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여가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을 좀 더 유쾌하게 도와준다. 특히 건강 수준의 경우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수준보다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Hartog & Oosterbeek, 1998). 건강과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기대수명, 운동빈도와 같은 객관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수준 등을 건강의 척도로 많이 측정하였다면(김석건·김광호, 2021; 김선아·박성민, 2018; 김하정, 2016; 신승배, 2015; 이승중·이서희·조창덕, 2020; 이정아, 2019; Hartog & Oosterbeek, 1998), 스트레스 및 신경성, 정신병적 경향 등 정신적 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허만형·이기엽, 2020; Furnham & Cheng, 2000; Perneger, Hudelson & Bovier, 2004; Power & Bullinger, 2002).

건강 부문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은 건강 역량이 의료기반이나 시설과 같은 투입적 측면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이다. 개인이 인식하는 의료서비스 여건 혹은 건강관리 여건이나 의사 수나 병상 수, 정신건강 증진기관 등 포괄적인 의료기반 시설의 충족 등은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중요한 필요조건이며, 따라서 이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구교준 외, 2020; 이영균·김동규, 2007; 허철행·김도엽, 2000). 한편 의료기반의 투입 수준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공정하게 받는다는 인식 또한 주관적 건강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문승민, 2019).

건강과 함께 여가 또한 여가생활을 통한 긍정적 정서와 경험, 자존감, 사회적 조화, 의미 찾기 등을 통해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주요 기제가 된다(Iwasaki, 2007). 여가에 있어 개인의 여가시간 혹은 개인이 인식하는 지역의 문화여건이나 여가 서비스는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명철, 2013; 김경식·이루지, 2011; 류승아·김경미·최인철, 2011; 이영균·김동규, 2007; 이유진·황선환, 2018).

한편 광재현·홍경원(2017)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여가 역량이 행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만족감이 증가하며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제적 수준과 여가 역량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곧 경제적 투입을 활용하여 여가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소득 수준으로 인한 여가 불평등을 의미하기도 한다(광재현·홍경원, 2017). 경제적 소득 수준과 독립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 향유와 행복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수나 공공도서관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등과 같은 전반적인 여가 시설이 활용될 수 있다(구교준 외, 2020; 허철행·김도엽, 2000). 이는 건강 및 여가와 관련한 충분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지닌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투입 수준의 차이를 상쇄시킴으로써 행복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정치적 요소

네 번째 전환요소는 정치적 요소로 주요요소로서 ‘민주주의’, ‘정부’, ‘부패’의 하위 요소들을 포함한다. 개인은 정부의 제도하에서 여러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을 두게 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나 정치적 효능감, 경제적 발전 등과 함께 행복을 가져다주는 거시적 요소 중 하나로 흔히 파악된다. 그런데 이는 민주주의 자체가 제공하는 만족감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라는 제도하에서 개인이 누리는 자유로운 삶의 선택을 통해 누리는 만족감이다. 예를 들어 Inglehart et al.(2008)은 민주주의를 통한 더욱 폭넓고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과 함께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통치 기간이나 공산주의 통치 기간에 따라 행복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오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온 국민일수록 행복 수준이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산주의 통치 기간이 길수록 행복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orn et al., 2007; Inglehart & Klingemann, 2000). 나아가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정치적 시민권이 인정될수록 높은 행복 수준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Diener & Diener, 1995; Frey & Stutzer, 2000).

정치적 요소의 두 번째 요소인 ‘정부’는 정부성과, 정부 효율성, 행정의 효과성, 정치 안전성, 거버넌스의 질 등 다면적인 요인들을 통해 행복과의 관계가 조명되고 있다(김선아·박성민, 2018; 이승중·이서희·조창덕, 2020; 최선미, 2018; Alvarez-Diaz, Gonzalez & Radcliff, 2010; Liang, Tang & Huo, 2014; Ott, 2010). Alvarez-Diaz, Gonzalez & Radcliff(2010)은 정부 이념과 개인의 성향과의 일치 여부는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거버넌스의 질과 행복의 관

계를 밝힌 Ott(2010)에 의하면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가 속한 지역이나 문화권과는 별개로 거버넌스의 기술적, 질적 측면이 발달한 나라에서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행정부의 크기(최선미, 2018; Ott, 2010), 정치적 안정성(이승중·이서희·조창덕, 2020), 행정의 효과성(김선아·박성민, 2018; 최선미, 2018) 등 또한 행복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소의 마지막 요인으로 '부패'는 정부의 전반적인 질적 측면과 행복 간의 관계를 주목한 것이다. Rose-Ackerman(1999:9)은 '부패'란 "사적 이익을 위한 위임된 권력의 남용"으로 정의하며 뇌물, 횡령, 영향력의 남용, 이해관계 충돌 등 경제·정치적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부패로 인해 다양한 부문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낮은 경제성장, 높은 불평등, 낮은 교육수준과 인프라 시설, 높은 범죄율과 환경오염, 낮은 신뢰와 높은 경제 및 안전 위험 등을 포함한다(Rose-Ackerman, 1999). 부패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는 본 연구의 투입과 산출 측면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결국 부패가 전반적인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증적 연구로 인식하는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은 감소하지만, 부패통제 수준은 높을수록 행복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아·박성민, 2018; Tavits, 2008; Welsch, 2008). 나아가 국민이 인식하는 부패수준이 행복뿐만이 아니라 행복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숙현(2020)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부패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의 행복을 낮출 뿐만 아니라 행복 불평등을 커지게 함으로써 부패가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 불평등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정부 효율성이나 부패의 경우도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매개나 조절 역할을 하면서 투입요인들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부문의 부패와 만연된 비효율성으로 정부 서비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나 건강, 등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만족감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5) 제도적 요소

마지막 전환요소는 제도적 요소로 이는 투입의 제도적 요소와 달리 주어진 자원이나 투입이 더욱 행복한 삶으로 더 잘 스며들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Esping-Andersen(1990/2007)은 복지국가의 지향점으로 시장에 구속되지 않고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

도록 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sping-Andersen (1990/2007:54, 79)은 탈상품화란 "어떤 서비스가 권리의 대상으로 주어질 때, 그리고 어떤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개인의 복지와 안전을 용인할 수 있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비록 상품화 자체는 자본주의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개별 노동자는 취약한 존재로 시장에 간히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 주장이다. 특히 Esping-Andersen (1990/2007)은 사회보험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개인을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한다면 탈상품화에 의미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탈가족화에 관련하여서는 "국가 또는 시장에서의 공급으로 가족의 복지 및 돌봄 책임이 완화되는 정도"로 정의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51).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 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들로 탈상품화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탈가족화의 경우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아동수당, 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김지연, 2020). 이러한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의 제도들은 노동이나 돌봄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다양한 투입과 자원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행복 증진에 있어 윤희유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나 여가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과 가정의 육아, 돌봄 노동 등으로 인해 개인이 이를 누리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투입이 전환되지 못하고 실제 행복으로 연결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Esping-Andersen(1990/2007)을 중심으로 복지체제별 탈상품화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제도적 측면과 행복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유정민 & 최영준, 2020; Pacek & Radcliff, 2008; Radcliff, 2001; Veenhoven, 2000). Pacek & Radcliff(2008)는 18개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탈노동의 측면에서 탈상품화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14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 유정민·최영준(2020)의 연구에서는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행복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GDP 대비 가족지출과 가족 현금급여 비중을 통해 탈가족화와 행복을 분석한 김지연(2020)은 가족지출은 행복을 높이지만, 가족 현금급여는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탈가족화 제도의 특징에 따른 행복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Ono & Lee(2013)는 여성이 어린 자녀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행복의 감소분을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출이 상쇄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탈가족화 정책으로 인한 제도적 지원들이 자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이처럼 양육자의 부담 감소를 통한 행복 증진은 돌봄과 관련한 탈가족화 제도 측면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Glass, Simon & Andersson(2016)은 자녀를 가진 부모는 수면 부족, 일·가정 충돌 등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게 되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돌봄 비용 지원 및 유급휴가와 같은 탈가족화 정책들이 이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경우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등과 같은 일·가정양립제도에 관한 부부의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김경미·계선자, 2018).

이러한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 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확장이 개인이 노동이나 돌봄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행복을 높이는데 있어 직·간접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V. 결론

본 리뷰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Veenhoven이 제시한 행복의 '투입-전환-산출'이라는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행복은 심리학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노인 및 아동학 등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보니 연구의 폭도 넓고 파생된 주제도 다양하다. 특히 기존의 행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의 기능을 단순하게 나열적이고 병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행복의 결정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제약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모래알처럼 넓게 흩어져 있는 기존 행복 연구를 하나의 이론적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 향후 행복 연구의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다.

행복의 결정요인 연구는 경제, 외부환경, 교육, 제도 등을 포함하는 투입과 문화 가치관, 관계, 건강 및 여가, 정치, 제도 등을 포함하는 전환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전자는 행복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후자는 직간접적인 결정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투입요인과 행복을 연결시키는 매개 및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전환요인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무리 풍부한 자원과 외부환경이 주어

지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행복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투입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시설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장애인 모빌리티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잘 지어진 도서관과 공연장이 있더라도 육아에 매여 있는 젊은 신혼부부의 돌봄 의무를 해소해 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수 있다. 훌륭한 체육시설이 집 근처에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행복의 투입요인과 전환요인은 상호작용하며 산출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 사회의 투입요인이 향상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행복 결정요인들이 가지는 이러한 입체적 관계와 메커니즘을 적절한 이론 틀의 부재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은 바로 방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리뷰를 토대로 행복 결정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Veenhoven의 이론 틀에 맞춰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 실증적 연구와 문헌연구를 망라하여 행복의 이론적 프레임의 재구성에 대해 검토되었으나 실증적 연구가 대체로 더 많았다. 이는 행복의 영향요인을 밝히는데 있어 실증적 연구가 목적을 용이하게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이러한 성과는 특히 행정학, 정책학 연구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상당히 크다. 어떻게 하면 같은 양의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동일한 수준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사회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질 높은 3만 달러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결국 어떻게 우리 사회를 디자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원의 투입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이 투입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요인의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개인이 자신에게 투입된 자원을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한 사회의 전환 기능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의 문제는 결국 정책 디자인의 문제이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좀 더 자유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며, 부패를 없애고, 개인이 자유로운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탈노동, 탈가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탄탄하게 마련하는 노력이 합쳐져야 더 좋은 사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자유로운 삶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행복 방정식을 푼 결론이다. 향후 행복 연구에서 평면적이거나 단선적인 행복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요인들 간의 상호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정책 답안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47(2): 1-30.
- 곽재현·홍경완. 2017. “소득에 따른 여가 불평등 : 여가시간·지출과 행복의 관계.” 《관광연구》, 32(5): 293-309.
- 구교준. 2020. “행복: 정책담론의 새로운 플랫폼.” 《정부학연구》, 26(2): 3-27.
- 구교준·이희철·김지원·박차늬. 2020.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삶의 질 차이의 지역 분포 분석: 지역역량(regional capability)의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26(1): 161-182.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김경미·계선자. 2018. “맞벌이 가정의 일 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36(4): 103-119.
- 김경식·이루지. 2011.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 국가통계자료 이용.” 《한국콘텐츠학회》, 11(11): 424-433.
- 김명소·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 8(2): 415-442.
- 김석진·김광호. 202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지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1(4): 565-575.
- 김선아·박성민. 2018. “OECD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행복역량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2(1): 1-28.
- 김지연. 2020. 《탈가족화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질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 2020. 《공공공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정. 2016. “농촌 지역 여성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간 호학회지》, 27(3): 254-261.
- 류승아·김경미·최인철. 2011. “중년기 여가생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 17(4): 415-434.
- 문승민. 2019.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이 주관적 건강행복에 미치는 영향: 공공의료서비스 질의 매개효과.” 《보건행정학회지》, 29(3): 323-331.
- 박정인·박민근. 2017. “삶의 만족과 경제적 수입.” 《GRI 연구논총》, 19(3): 69-88.

- 변미리·최정원. 2016. “서울 시민의 행복 매커니즘 : 시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조사연구학회》, 17(2): 61-84.
- 신승배. 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41(2): 183-208.
- 안윤정. 2014.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민·최영준. 2020. “복지국가는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유안정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2(1): 87-116.
- 이민아·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4): 89-114.
- 이숙현. 2020. 《부패가 행복과 행복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65개 국가의 소득수준별 차이를 고려하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중·이서희·조창덕. 2020. “공공행복 수준과 분포의 차별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54(1): 171-197.
- 이영균·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 이영빈·정창무. 2013.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77-88.
- 이우민·서승연·이경환. 2016. “지역주민들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351-360.
- 이유진·황선환. 2018. “가구 소득과 여가시간에 따른 행복지수.”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1): 86-96.
- 이정아. 2019. “지역사회 사회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 및 삶의 만족도.” 《대한보건연구》, 45(2): 107-116.
- 조준택·박지선. 2016. “범죄율과 범죄두려움이 서울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17(4): 131-144.
- 최선미. 2018. “국가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행정, 사법, 정치역량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3): 253-289.
- 최일진·남황우. 2016.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0(1): 45-76.
-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81-95.
- 한준·김석호·하상응·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허만형. 2014. “지방정부의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 18(3): 231-254.
- 허만형 · 이기엽. 2020. “지방정부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적·사회적·건강요인 간 구조 관계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2): 95-123.
- 허철형 · 김도엽. 2000.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12(4): 637-655.
- 황종석. 2017.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주민행복 영향요인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개발학회》, 17(2): 119-145.
- Akay, Alpaslan, Amelie F. Constant, Corrado Giuliotti, & Martin Guzi. 2017. “Ethnic diversity and well-being.”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0(1): 265-306.
- Alderson, Arthur. S., & Tally Katz-Gerro. 2016. “Compared to whom? Inequality, social comparison,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95(1): 25-54.
- Alesina, Alberto, & Eliana La Ferrara. 2002. “Who trusts oth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2): 207-234.
- Alvarez-Diaz, Angel, Lucas Gonzalez, & Benjamin Radcliff. 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On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the American states.” *The Journal of Politics*, 72(3): 894-905.
- Becchetti, Leonardo, Alessandra Pelloni, & Fiammetta Rossetti. 2008. “Relational goods, sociability, and happiness.” *Kyklos*, 61(3): 343-363.
- Benita, Francisco, Garvit Bansal, & Bige Tunçer. 2019. “Public Spaces and Happiness: Evidence from a Large-scale Field Experiment.” *Health and Place*, 56: 9-18.
- Bramston, Paul, Grace Pretty, & Heather Chipuer. 2002. “Unravell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nd Community Determina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3): 261-274.
- Brulé, Gaél, & Ruut Veenhoven. 2014. “Freedom and happiness in nations: Why the Finns are happier than the French.” *Psychology of Well-Being*, 4(1): 1-14.
- Campbell, Angus, & Philip E. Converse. 1972.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Y: Russell Sage.

- Chang, Hsiao-Ting, Nai Wei Hsu, Hsi Chung Chen, Hsuan Ming Tsao, Su Shun Lo, & Pesus Chou. 2018. "Associations between body mass index and subjective health outcomes among older adults: Findings from the Yilan study,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12): 2645.
- Cheng, Zhiming, & Russell Smyth. 2015. "Crime victimization, neighborhood safety and happiness in China." *Economic Modelling*. 51: 424-435.
- Clark, Andrew E. 2003.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2): 323-351.
- Clark, Andrew E., Paul Frijters, & Michael A. Shields.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rowley, Frank, & Edel Walsh. 2021. "Tolerance,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 multilevel model from transition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Review of Social Economy*. 1-28.
- de Neufville, Judith Innes. 1975. *Social Indicators and Public Policy*. Amsterdam: Elsevier Publishing Co.
- Deaton, Angus.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 Deci, Edward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 Diener, Ed.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d, & Robert Biswas-Diener. 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2): 119-169.
- Diener, Ed, Marissa Diener, & Carol Diener.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51-864.
- Diener, Ed, Eunkook M. Suh, Heidi Smith, & Liang Shao.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1): 7-32.

- Dorn, David, Justina A. V. Fischer, Gebhard Kirchgässner, & Alfonso Sousa-Poza.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3): 505-526.
-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A. David and W. R. Melvin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Stamford University Press, Palo Alto, CA), 98-125.
- _____.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35-47.
- _____.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473): 465-484.
- _____.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00(19): 11176-11183.
- Elsinga, Marja, & Joris Hoekstra. 2005. "Homeownership and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0(4): 401-424.
- Esping-Andersen, Gosta. 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박시중 역(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Florida, Richard, & Gates, Gary. 2001. "Technology and Tolerance: The importance of diversity to high-tech growth." *Center for Urban and Metropolitan Policy*. 20: 32-33.
- Frey, Bruno S., & Alois Stutzer.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 _____.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김민주·정나영 역(2008). 《경제학, 행복을 말하다》, 서울: 도서출판 예문.
- Furnham, Adrian, & Helen Cheng. 2000. "Lay theorie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 227-246.
- Gerdtham, Ulf-G., & Magnus Johannesson.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0(6): 553-557.
- Glass, Jennifer, Robin W. Simon, & Matthew A. Andersson. 2016. “Parenthood and happiness: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22 OECD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3), 886-929.
- Graham, Carol, & Andrew Felton. 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1): 107-122.
- Grasseni, Mara, & Federica Origo. 2018. “Competing for Happiness: Attitudes to Competition, Positional Concerns and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7): 1981-2008.
- Hagerty, Michael R., & Ruut Veenhoven.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 Haller, Max, & Markus Hadler. 2004. “Happiness as an expression of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Challenges for quality of life in the contemporary world*. Springer, Dordrecht. 207-231.
- Hansmaier, Michael. 2013. “Crime, fear and subjective well-being: how victimization and street crime affect fear and life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0(5): 515-533.
- Hartog, Joop, & Hessel Oosterbeek. 1998. “Health, Wealth and Happiness: Why Pursue a Higher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7(3): 245-256.
- Helliwell, John F., & Robert D. Putnam.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Hopkins, Ed. 2008. “Inequality, happiness and relative concerns: What actually is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6(4): 351-372.
- Hudson, John. 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59(1): 43-62.
- Inglehart, Ronald F., Svetlana Borinskaya, Anna Cotter, Jaanus Harro, Ronald C. Inglehart, Eduard Ponarin, & Christian Welzel. 2013. *Genes*,

- security, tolerance and happiness*. Higher School of Economics Research Paper No. WP BRP, 31.
- Inglehart, Ronald F., Roberto Foa, Christopher Peterson, & Christian Welzel.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4): 264-285.
- Inglehart, Ronald, & Hans-Dieter Klingemann.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165-183.
- Iwasaki, Yoshitaka. 2007. "Leisure and quality of life in an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context: What are major pathways linking leisure to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2): 233-264.
- Kesebir, Pelin, & Ed Diener. 2008. "In pursuit of happiness: Empirical answers to philosophical ques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117-125.
- Kim, Danya, & Jangik Jin. 2018. "Does happiness data say urban parks are worth it?"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78: 1-11.
- Kubovy, Michael. 1999. "On the pleasure of the mind."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Haven: Yale Univ Press.
- Kuroki, Masanori. 2013. "Crime Victimiz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Happiness Dat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3): 783-794.
- Land, Kenneth C. 1983. "Social indicator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 1-26.
- Layard, Richard. 2006. "Happiness and public policy: A challenge to the profession." *The Economic Journal*, 116(510): C24-C33.
- Lelkes, Orsolya. 2006. "Tasting freedom: Happiness, religion and economic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9(2): 173-194.
- Liang, Hongsong, Yinshan Tang, & Xuexi Huo. 2014. "Liushou women's happines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in Rural Chi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3): 907-918.
- Lim, Chaeyoon, & Robert D. Putnam. 2010. "Religion, social networks, and

- life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6): 914-933.
- Lu, Luo, & Michael Argyle. 1991. “Happiness and cooper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0): 1019-1030.
- Maas, Joland, Sonja M.E. van Dillen, Robert A. Verheij, & Peter P. Groenewegen. 2009. “Social contacts as a possible mechanism behind the relation between green space and health.” *Health Place*, 15(2): 586-595.
- MacKerron, George, & Susana Mourato. 2009. “Life satisfaction and air quality in London.” *Ecological Economics*, 68(5): 1441-1453.
- Maximo, Mário. 1987.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and wellbeing and how objective the concept of a good life can be*. Paper presented at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Economic Philosophy.
- Michalos, Alex C. 2008. “Education, happiness and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3): 347-366.
- Michalos, Alex C., & Bruno D. Zumbo. 1999. “Public services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8(2): 125-157.
- Myers, David G., & Ed Diener.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ussbaum, Martha.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9(2-3): 33-59.
- Ogburn, William F. 1935. “Indexes of social trends and their fluctu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0(6): 822-828.
- Ogburn, William F., & Abe J. Jaffe. 1936. “Indexes of social tre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6), 776-782.
- Ono, Hiroshi, & Kristen Schultz Lee. 2013. “Welfare states and the redistribution of happiness.” *Social Forces*, 92(2): 789-814.
- Ott, Jan C. 2010.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 353-368.
- Pacek, Alexander C., & Benjamin Radcliff. 2008. “Welfare Polic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179-191.
- Palys, T. S., & Brian R. Little. 1980. “Social indicators and the quality of

- life." *Canadian Psychology*, 21(2): 67-74.
- Perneger, Thomas V., Patricia M. Hudelson, & Patrick A. Bovier. 2004. "Health and happiness in young Swiss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13(1): 171-178.
- Power, Mick J., & M. Bullinger. 2002. "The universality of quality of life: an empirical approach using the WHOQOL." *The Universality of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Springer, Dordrecht, 129-149.
- Putnam, Bob., & Putnam, Robert D. 2007. "E pluribus unu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2006 Johan Skytte prize lectur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137-174.
- Radcliff, Benjamin. 2001. "Politics, markets,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939-952.
- Rajani, Nikita B., Vassilis Skianis, & Filippos T. Filippidis. 2019.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with life satisfaction in 27 European countries." *BMC Public Health*, 19(1): 534.
- Reiss, Julian. 2013. *Philosophy of economic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Routledge. 김용준 · 김승원 역(2020). 《경제철학 입문: 현대편》, 서울: 논형.
- Rose-Ackerman, Susan.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yan, Richard M., & Edward L. Deci.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 Schmid, Katharina, Ananthi Al Ramiah, & Miles Hewstone. 2014. "Neighborhood ethnic diversity and trust: the role of intergroup contact and perceived threat." *Psychological Science*, 25: 665-674.
- Sen, Amartya. 1980. "Equality of what?." In McMurrin, Sterling M. (ed.)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pp. 257-280). Salt Lake City: Univ of Utah Press.
- Sirgy, M. Joseph, Tao Gao, & Robert F. Young. 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 (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2): 81-105.
- Stutzer, Alois. 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4(1): 89-109.
- Tavits, Margit. 2008. "Representation, Corru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12): 1607-1630.
- Tella, Rafael Di, Robert J. MacCulloch, & Andrew J. Oswald.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09-827.
- Tokuda, Yasuharu, Seiji Fujii, & Takashi Inoguchi. 2017. "Individual and country-level effects of social trust on happiness: The Asia barometer survey." In *Trust with Asian Characteristics*. Springer, Singapore. 123-139.
- Veenhoven, Ruut.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_____.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1-39.
- _____. 2001.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Not Quite the Same(Translated in English)". In G. DeGirolamo (Ed.), *Salute e qualita dell vida (Published in Italian)*. (pp. 67-95), Torino, Italy: Centro Scientifico Editore.
- Verme, Paolo. 2009. "Happiness, freedom and contro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1(2): 146-161.
- Welsch, Heinz. 2008. "The welfare costs of corruption." *Applied Economics*, 40(14): 1839-1849.
- Zhang, Fang, Chuanyong Zhang, & John Hudson. 2018. "Housing condi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 urban China." *Cities*. 81: 35-44.

$H = XZ^2$, Solving the Happiness Equation: A Review on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Ji Won Kim, Jun Koo, Dong Wook Kim & Eun Jeong Ko

Happiness is a universal subject that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a wide range of social sciences, such as psychology, economics,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Additionally, it has been studied in combination with various subjects in numerous field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an extensive body of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The review summarizes the existing literature based on a conceptual framework (input-transition-output of happiness) suggested by Veenhoven. Since the input and transition factors of happiness interact and are deeply intertwined, improving only the input factor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the improvement of happiness level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put of resources that can directly affect happiness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attention should be directed at the transition factors that play critical roles in converting input resources into individual happiness.

※ Keywords: Happiness, Determinants of Happiness